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3. 27.(월) 06:00 ~ 23:00
- 상담건수¹⁾: 858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2명)

-프로그램명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동네 한 바퀴」 ‘미국 LA 2부’

-방송일시 : 2023. 3. 25.(토) 1TV (19:10-20:05)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기를 재미있게 봤다. 특히 안창호 선생의 후손을 만나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내용이 그려졌는데 굉장히 뜻깊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방송이었다. 진행자 이만기 씨의 구수한 진행도 재미를 더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동네 한 바퀴」 여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 극본 제언(2명)

-프로그램명 :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방송일시 : 2023. 3. 26.(일) 2TV (20:05-21:25)

미혼모와 비혼남의 계약 로맨스를 다뤘는데, 시청 내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비혼주의 설정은 보기 불편했다. 또 주인공 공태경(안재현 분)이 할머니에게 “은금실(강부자 분) 씨”라고 부르는 장면도 예의에 어긋나 보기 안 좋았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없음.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858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512	29	-	-	317	858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07	227	32	-	1	191	858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201	657	-	858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06	11	106	135	858

시청자 의견	문 의
【시사·교양】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동네 한 바퀴」 - 방송 호평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청자 참여 제언 【연예·오락】 ○ 「열린음악회」 - 시청자 참여 제언 ○ 「걸어서 환장 속으로」 - 방송 제언 【드라마】 ○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 극본 제언 【라디오】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진행자 호평 ○ 「뉴스브런치」 - 진행자 호평	【방 송】 ○ 「6시 내고향」 - 「미역 문의」 연락처 문의 27건 ○ 「2TV 생생정보」 - 「원조창평시장국밥」 연락처 문의 18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6건 ○ 「아침마당」 - 「진행자 제언」 14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13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7건 ○ 「수신기술」 문의 1건 외 2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48건 ○ 「수신료」 문의 12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8건 ○ 「전화교환」 문의 24건 ○ 「주차」 문의 2건 외 2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35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방송 호평 시청자 참여 제언	○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동네 한 바퀴」 ‘미국 LA 2부’(2명) - 2023. 3. 25.(토) 1TV (19:10-20:05) - 미국 로스앤젤레스 방문기를 재미있게 봤다. 특히 안창호 선생의 후손을 만나 도산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내용이 그려졌는데 굉장히 뜻깊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노고가 느껴지는 방송이었다. 진행자 이만기 씨의 구수한 진행도 재미를 더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동네 한 바퀴」 여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딱딱하게 굳는 혈관과 장기를 지켜라’ - 2023. 3. 27.(월) 1TV (10:00-11:00) - 이날 방송을 시청하던 중 문의사항이 생겨 연락을 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따라 생방송 ARS 전화가 없었고, 티벳이라는 어플을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했다. 시청자들 중에는 티벳이 뭔지, 어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다양한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생방송 ARS 전화 참여를 열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연예·오락]	
시청자 참여 제언	○ 「열린음악회」 - 1TV (일) (18:00-19:00) - 본인도 해당 방송을 방청하고 싶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방청 신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로 참여하는 방안도 마련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방송 제언	○ 「걸어서 환장 속으로」 - 2023. 3. 26.(일) 2TV (21:25-22:55) - 가수 문희준 씨 부부가, 이혼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게 된 문희준 씨의 여동생 가족과 함께 광으로 여행가는 모습을 시청했다. 방송에서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의 지극히 사적인 가정사가 다뤄지는 점, 또 개인의 사적인 아픔을 치유하고 힐링하는데 시청료가 사용되는 점 등이 보기 불편했다. ※의견제시자 : 익명
[드라마]	
극본 제언	○ 주말드라마 「진짜가 나타났다」 (2명) - 2023. 3. 26.(일) 2TV (20:05-21:25) - 미혼모와 비혼남의 계약 로맨스를 다뤘는데, 시청 내내 우려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비혼주의 설정은 보기 불편했다. 또 주인공 공태경(안재현 분)이 할머니에게 “은금실(강부자 분) 씨”라고 부르는 장면도 예의에 어긋나 보기 안 좋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라디오]	
진행자 호평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2023. 3. 27.(월) 1R (09:05-10:53) - KBS 1라디오를 온종일 청취한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성을 알 수 있어 유익하다. 이번에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게 느껴져 고마웠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진행자 호평	○ 「뉴스브런치」 - 1R (월-금) (11:05-11:57) - 매일 오전 「뉴스브런치」를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 다른 분이 진행을 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동안 정용실 씨에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아쉽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하게 되었다면 빨리 쾌차하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